
2021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2021. 3.

공 군 사 관 학 교

2021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

1. 개 요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정한 대학별 고사에 해당하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역사·안보논술, 면접시험)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임.

2. 관련근거 및 자체 규정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9. 3. 26.)

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191('21. 2. 16.)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 및 자료 제출 안내

다. 공사예규 2-131('20. 9. 1.) 사관생도 모집 및 선발 제13장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3.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기타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한국사		물리	화학			
1차 시험	일반/특별 전형 공통	인문/자연 계열 공통	국어	○								
			영어						○			
인문/자연 계열 분리		수학				○						
논술 시험		인문/자연 계열 공통		○			○					○
면접 시험												○

4.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세부내용	이행여부	비 고
관련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 공개	○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 작성(충실성)	△	제한적 공개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인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규정 : 공사예규 2-131 사관생도 모집 및 선발

제13장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제72조(목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의 2(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73조(위원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관리실장, 위원은 입학전형 관련부서장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최상급자가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제74조(자체평가 보고서) 위원장은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자체평가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1) 위원장 및 위원(사관학교 교수, 관련부서장, 고등학교 교사 등) 포함 총 6명으로 구성

라.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및 일정

구분	추진 내용(절차)	일 정
1	선 행 학 습 영 향 평 가 계 획 수 립	2월 3주
2	입 학 전 형 영 향 평 가 위 원 회 구 성	2월 4주
3	평가 항목(1차/2차시험)별 자체 영향평가 시행	3월 1~2주
4	선 행 학 습 영 향 평 가 보 고 서 작 성 / 심 의	3월 3~4주
5	인 터 넷 홈 페 이 지 공 개 / 고 육 부 제 출	~ 3. 31.(수) 限
6	평 가 결 과 및 개 선 사 항 반 영	'22학년도 시험 출제시

5. 고교 교육과정 범위 수준 준수 노력

가. 1차시험

1) 출제 前

가) 시험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나) 출제범위

구 분		출제 범위	비 고
국어(공통)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45문항
영어(공통)		영어 I, 영어 II	45문항
수학	가(자연계열)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30문항
	나(인문계열)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30문항

다) 출제형식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 형식(영어 듣기 제외)

2) 출제과정

가) 시험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의 범위에서 출제

나) 출제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 문제와 오류 가능성 여부 검토 및 검증

다) 출제과정 중 국어·영어·수학 문제에 대해 각 문항별 문항분석표 작성,
문항별 고교 교과 내용 적시 및 고교 교육과정 내의 범위 준수

3) 출제 後

가) 1차시험 후 정답 홈페이지 공고, 1차시험 문제에 대해 수험생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기간 운영. 해당 절차를 통해 출제위원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제시

나. 역사·안보 논술

1) 출제 前

가) 출제범위 :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 1문항

나) 출제형식 : 지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

2) 출제과정

가) 논술시험위원회 구성, 역사·안보 내용을 토대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는 주제를 선정 및 문제출제

6. 1차시험 각 과목별 문항분석 결과

가. 국어영역

1) 출제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나) 출제범위 :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2) 문항 분석 결과

가) 화법과 작문

문항 번호	1~10
출제 의도	• 화법의 원리, 매체 활용, 듣기의 과정에 대해 평가 • 효과적인 표현 전략에 대해 평가
검토 의견	•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화법 3문항, 화법과 작문 통합 4문항, 작문 3문항으로 각 영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제시문의 내용 역시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쉽게 다룰 수 있는 일반적 제대를 다루었고 평가 내용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3번 문항에서는 화법 영역에서는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강연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3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화법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표현 전략, 시각 자료인 매체 활용의 효과 파악 능력, 발표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 등을 검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4~7번까지는 토론을 통한 내용 생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작문 과정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먼저 토론을 통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문항들을 통해 토론자들이 주장한 내용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적인 화법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법의 과정을 올바르게 작문의 과정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제문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 8~10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이라는 과제로 글쓰기를 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생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의 타당성을, 작성한 원고를 고쳐쓰기 능력 등을 점검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나) 문법

문항 번호	11~15
출제 의도	• 문법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평가 • 규칙을 새로운 국어 자료에 적용,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
검토 의견	• 문법 영역에서는 음운, 단어, 문장, 의미, 중세국어 등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5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모든 문항에 <보기>를 제시하여 문법 규칙 및 현상에 대한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이해를 도왔다. • <보기>를 통해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중세국어 역시 정확한 제시문을 제시하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독서(인문)

문항 번호	16~20
출제 의도	• 지문에 대한 이해, 분석, 비판적 검토 능력을 평가 •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인문 영역에서는 동양적 사고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의 지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5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글의 전개 방식, 지문을 통해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 분석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동중서의 이론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음양오행설과 천인감응설 등 구체적인 설명을 첨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였으며 국어과 교육과정의 ‘글의 전개 과정 이해’ 등의 성취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라) 독서(사회)

문항 번호	21~25
출제 의도	• 이해 능력, 분석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 • 글을 이해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사회 영역에서는 법학방법론에서 법관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였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 등을 출제하여 사실적 독해 능력과 추론적 독해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이 지문의 핵심 개념인 ‘범형성’은 지문에서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구체적 과정과 사례도 풍부히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이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독서(기술)

문항 번호	26~29
출제 의도	• 사실적 독해 능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
검토 의견	• 기술 영역에서는 유세포분석법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4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읽었는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추론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분량에 비해 세부적인 정보의 양이 다소 많을 수 있지만, 주요 내용인 유세포 분석기의 그림과 그래프를 함께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29번 문항에서도 <보기>에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 문학(현대시)

문항 번호	30~33
출제 의도	• 현대시에 대한 이해 능력과 감상 능력을 평가 • 서로 다른 두 작품을 연관시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김소월의 「왕십리」와 김명인의 「머나먼 곳 스와니 I」 두 편의 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4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먼저 두 편의 시에서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하였고,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두 시의 시행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사) 문학(고전시가)

문항 번호	34~36
출제 의도	•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능력을 평가 • 두 작품을 제시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검토 의견	• 고전시가 송순의 「면앙정가」와 경기체가 안축의 「죽계별곡」을 제시하여 3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낯선 어휘의 경우 각주를 현대어로 달아 제시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기>와 제시 작품을 연결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제를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 문학(현대소설)

문항 번호	37~40
출제 의도	• 현대소설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
검토 의견	• 김문수의 「만취당기」의 일부를 제시하고 소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4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부분의 줄거리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또 세대를 이어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에서는 간략한 도식화를 통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 소설에서 중요한 문항인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태도 등을 묻고자 하였고, 작품의 맥락 안에서 특정 표현을 이해하는 문항도 출제하였다.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과정에 등장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 문학(고전소설+희곡)

문항 번호	41~45
출제 의도	• 고전소설과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희곡을 함께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 • 장르별 특성을 이해하고 작중 인물의 심리, 배경 등의 이해력을 평가
검토 의견	• 고전소설 「심청전」과 채만식의 희곡 「심봉사」의 일부를 지문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5개 문항을 출제하였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심청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며, 이를 각색한 「심봉사」 역시 어렵지 않은 작품이다. 또 어려운 단어는 각주를 통해 풀이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보기>를 통해 여러 등장인물의 작품 내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고, 작품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문항을 통해 묻고자 하였다. 특히 소설과 희곡 사이의 장르간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국어 총평

2021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시험 국어문제는 교육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으로 출제되었음.

나. 영어영역

1)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나) 출제범위 : 영어 I, 영어 II

2) 문항 분석 결과

가) 회화(듣기, 말하기)

문항 번호	1~6
출제 의도	• 회화 시 전체 내용 추론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함. • 회화 시 대화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 내용에 맞는 표현 구사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1, 5번 문항) 대화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 (2, 3번 문항) 가상의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대화나 담화를 읽고 전체적인 맥락과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을 표현할 수 있는 간접 말하기 능력 - (4번 문항) 대화를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대화자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 (6번 문항) 대화를 읽고 말하는 이의 의도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능력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 I, 영어 II의 성취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1, 5번 문항) 내용 일치/불일치 - (2, 3번 문항) 적절한 응답 추론 - (4번 문항) 대화자 관계 추론 - (6번 문항) 대화 목적 파악 - 대학수학능력시험능력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일상 대화, 건강 관련 대화, 강의 관련 대화에 관한 소재가 제시됨.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말의 연결,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화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언어를 바탕으로 함. • 회화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독해

문항 번호	7~14 / 16~17 / 26~30
출제 의도	• 독해 시 내용 파악 및 요약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글의 제목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구체적인 내용,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어휘의 의미와 본문 내용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7번 문항)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하는 능력 - (8~14번 문항) 글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글의 주제, 요지, 제목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16번 문항) 글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나 기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17번 문항)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지칭 추론 능력 - (26~30번 문항)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 구, 절, 문장)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 I, 영어 II의 성취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7번 문항) 필자의 주장 - (8번 문항) 글의 시사점 - (9, 10번 문항) 글의 요지 - (11, 12번 문항) 글의 주제 - (13, 14번 문항) 글의 제목 - (16번 문항) 내용 일치/불일치 - (17번 문항) 지칭 추론 - (26~30번 문항) 빈칸 추론 - 대학수학능력시험능력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가치, 인성, 문화, 시사, 상식, 인물 등 일반교양 및 현대 사회의 일상적 양상을 이해하고 인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소재와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언어를 바탕으로 함. • 독해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만한 수준으로 생각됨.

다) 작문

문항 번호	15, 31~37
출제 의도	• 도표를 보고 묘사하는 작문 능력을 평가함. • 작문 시 논리 전개 및 내용 파악 능력을 평가함. • 작문 시 내용을 파악하여 결론 작성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15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접 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도표를 보고 그와 일치하지 않게 쓰여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31번~37번)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접 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 흐름에 무관한 문장이거나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 글의 순서 파악, 그리고 문단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 I, 영어 II의 성취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15번 문항) 도표 내용 일치/불일치 파악 - (31, 32번 문항) 글의 순서 파악 - (33, 34번 문항)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 파악 - (35, 36번 문항) 글의 흐름에 무관한 문장 파악 - (37번 문항) 문단 요약 - 대학수학능력시험능력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성별에 따른 군대 내에서의 역할, 자유무역협정, 정보 관리 사업, 법, 항생제, 식물, 지리 등에 관한 소재로 창의성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한 언어를 바탕으로 함. • 작문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 부합함.

라) 문장구성 및 어휘

문항 번호	문장구성(18~21), 어휘(22~25)
출제 의도	• 독해 시 문장구성의 적합성 평가 • 독해 시 어휘 능력 및 어휘의 의미와 본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18~25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하여 구성의 적합성이나 어휘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문맥에 따른 표현, 어휘의 정확성 파악 및 지칭 추론 등을 할 수 있는 능력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 I, 영어 II의 성취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18~19번 문항) 문장구성의 적합성 판단 - (20~21번 문항) 맞는 표현 고르기 - (22~23번 문항) 문맥상 낱말의 쓰임의 적합성 판단 - (24~25번 문항) 문맥상 맞는 낱말 고르기 - 대학수학능력시험능력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교육과정 범위 내의 언어의 표현 요소를 다루고, 어휘 역시 문항의 수나 난이도 정도가 평가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함. • 문장구성 및 어휘영역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절함.

마) 복합교과영역(장문독해)

문항 번호	38~45
출제 의도	• 독해 시 내용 파악 능력 및 논리적 글 읽기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글의 제목 파악 능력 및 어휘의 의미와 본문 내용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 독해 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 능력 및 어휘의 의미와 본문 내용 일치시키는 능력을 평가함. • 작문 시 논리전개 능력 및 독해 시 구체적인 내용 파악 능력을 평가함.
검토 의견	• 평가목표 - (38, 40번 문항) 글을 읽고 글의 주제, 요지, 제목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39, 43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통하여 어휘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능력 - (41번 문항)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글에서 빠진 정보(단어)를 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능력 - (42, 45번 문항) 글에 제시된 특정 정보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글의 내용 일치/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44번 문항)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장 간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가상의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읽기 자료를 통해 글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영어 I, 영어 II의 성취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 출제형식 - (38번 문항) 글의 주제 - (39번, 43번 문항) 문맥상 낱말의 쓰임의 적합성 판단 - (40번 문항) 글의 제목 - (41번 문항) 빈칸 추론 - (42번, 45번 문항) 내용 일치/불일치 - (44번 문항) 글의 순서 - (대학수학능력시험능력과 유사한 출제 형식의 문제가 출제됨. • 소재 및 언어분석 - 시사, 이야기를 소재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자연스러운 언어습득과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언어를 바탕으로 함.

검토 의견	• 복합 교과영역(장문독해)은 평가목표, 출제 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다면 지문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사고 과정을 통하여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

3) 영어 총평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친숙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지문이나 전문 용어 및 어휘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나 요인은 없는지에 관해 교과영역에 따라 평가목표, 출제형식, 소재 및 언어분석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2021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시험 영어영역은 고교과정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음.

다. 수학영역

1)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나) 출제범위

구 분	세부 과목
수학 ‘가’형	수학 I,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 ‘나’형	수학 I, 확률과 통계, 수학Ⅱ

2) 문항 분석 결과(수학 ‘가’형)

가) 내용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과 목	단 원	수학'가'형			
		문항수	배점	문항 번호	합계
수학 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3	8	1, 5, 8	총 11문항 36점
	삼각함수	4	12	3, 10, 15, 22	
	수열	4	16	17, 18, 26, 27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3	9	4, 6, 9	총 8문항 26점
	확률	2	7	25, 29	
	통계	3	10	13, 16, 23	
미적분	수열의 극한	3	9	2, 19, 24	총 11문항 38점
	미분법	5	18	7, 11, 20, 28, 30	
	적분법	3	11	12, 14, 21	
합계		30	100	-	

나) 수학 I

문항 번호	1, 3, 5, 8, 10, 15, 16, 18, 22, 26, 27
출제 의도	• 수학 I 영역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3문항), 삼각함수(4문항), 수열(4문항)에서 총 11문항을 출제하여 수학 I 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3문제), 이해능력(3문제), 문제해결능력(3문항), 추론능력(2문항)을 적절하게 평가
검토 의견	• 수학 I 영역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3문항, 삼각함수 4문항, 수열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부터 추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되었다. 수학‘가’형과 ‘나’형의 공통 문항으로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과정의 빈칸을 추론하는 문항(17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주기와 최댓값을 묻는 문항(22번), 등차수열의 합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항(26번)이 출제되었다.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는 지수의 계산(1번),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5번), 로그가 포함된 연립부등식(8번)과 같이 주로 교과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삼각함수의 뜻(3번),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10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22번)을 묻는 개념 이해 문항과 코사인법칙을 활용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15번)이 출제되었다. • 수열 단원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18번)를 묻는 추론 문항과 등차수열의 합과 로그의 성질(26번),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정의된 수열의 합(27번)을 묻는 내적 해결 문항이 출제되었고, 순열의 수와 관련된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수학적 귀납법(17번) 문항은 난도가 다소 높은 증명 문항이지만 수학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수학 I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확률과 통계

문항 번호	4, 6, 9, 13, 16, 23, 25, 29
출제 의도	• 확률과 통계 영역의 경우의 수(3문항), 확률(2문항), 통계(3문항)에서 총 8문항을 출제하여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개념이해능력(5문항), 문제해결능력(3문항)을 적절하게 평가
검토 의견	•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 3문항, 확률 2문항, 통계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물어보는 문항부터 문제 해결 문항까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수학‘가’형과 ‘나’형의 공통 문항으로 원순열의 수를 묻는 개념 이해 문항(6번)이 출제되었다. •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항정리(4번), 원순열의 수(6번), 중복조합의 수(9번)를 묻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다.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확률 단원에서는 조건부 확률과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25번)과 조합을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29번)이 출제되어 난도가 다소 높은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통계 단원에서는 이산확률분포(13번), 표본평균의 분포(23번)에서 평균 또는 표준편차를 묻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고, 정규분포에서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해결 문항(16번)이 출제되었다. 역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확률과 통계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미적분

문항 번호	2, 7, 11, 13, 14, 19, 20, 21, 24, 28, 30
출제 의도	• 미적분 영역의 수열의 극한(3문항), 미분법(5문항), 적분법(3문항)에서 총 11 문항을 출제하여 미적분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4문항), 문제해결능력(4문항), 추론능력(2문항)을 적절하게 평가하고자 함.
검토 의견	•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 3문항, 미분법 5문항, 적분법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난도가 높은 문항이 미적분 영역에서 주로 출제되었다. •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계산문항(2번)과 등비수열의 수렴조건을 묻는 개념 이해 문항(24번)이 출제되었고,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19번)이 출제되었다. 특히, 19번 문항은 2020학년도까지 수학‘나’형에서 출제된 문항이지만 올해부터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하여 수학‘가’형에서 출제되는 문항이므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 미분법 단원에서는 음함수의 미분법(7번), 몫의 미분법(11번)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고, 연속함수의 성질과 미분법(20번), 도형을 활용하여 삼각함수가 포함된 함수의 극한값(28번)을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이 출제되었고, 함수의 그래프를 추측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문항(30번)이 출제되었다. 특히, 난도가 높은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상위권 학생들을 충분히 변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적분법 단원에서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12번), 급수를 정적분의 뜻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14번),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추론 문항(21번)이 출제되었다. • 미적분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수학 ‘가’형 총평

2021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 시험 수학‘가’형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기초한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2015 개정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음.

4) 문항 분석 결과(수학'나'형)

가) 내용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과 목	단 원	수학'가'형			
		문항수	배점	문항 번호	합계
수학 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3	9	1, 21, 24	총 11문항 36점
	삼각함수	4	12	3, 10, 19, 23	
	수열	4	15	13, 16, 18, 29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3	10	6, 8, 27	총 8문항 26점
	확률	2	5	2, 25	
	통계	3	11	11, 14, 17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	3	10	5, 22, 26	총 11문항 38점
	다항함수의 미분법	4	14	4, 9, 15, 30	
	다항함수의 적분법	4	14	7, 12, 28, 20	
합계		30	100	-	

나) 수학 I

문항 번호	1, 3, 10, 13, 16, 18, 19, 21, 23, 24, 29
출제 의도	• 수학 I 영역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3문항), 삼각함수(4문항), 수열(4문항)에서 총 11문항을 출제하여 수학 I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2문제), 이해능력(4문제), 문제해결능력(2문항), 추론능력(3문항)을 적절하게 평가
검토 의견	• 수학 I 영역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3문항, 삼각함수 4문항, 수열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부터 추론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되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의 공통 문항으로 등차수열의 합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항(16번),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과정의 빈칸을 추론하는 문항(18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주기와 최댓값을 묻는 문항(23번)이 출제되었다.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는 지수의 계산(1번), 로그가 포함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24번)이 출제되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추론 문항(21번)이 출제되었다. •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계산 문항(3번)이 출제되었고,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10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23번)을 묻는 개념 이해 문항과 도형의 성질과 사인법칙을 이용하여 비를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19번)이 출제되었다. • 수열 단원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13번)를 묻는 추론 문항과 등차수열의 합과 로그의 성질(16번)을 묻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고, 순열의 수와 관련된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수학적 귀납법(18번) 문항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29번)은 난도가 다소 높은 증명 문항이지만 수학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수학 I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확률과 통계

문항 번호	2, 6, 8, 11, 14, 17, 25, 27
출제 의도	• 확률과 통계 영역의 경우의 수(3문항), 확률(2문항), 통계(3문항)에서 총 8문항을 출제하여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3문항), 문제해결능력(4문항)을 적절하게 평가
검토 의견	•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 3문항, 확률 2문항, 통계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묻는 문항부터 문제 해결 문항까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수학‘가’형과 ‘나’형의 공통 문항으로 원순열의 수를 묻는 개념 이해 문항(8번)이 출제되었다. •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이항정리(6번), 원순열의 수(8번)를 묻는 개념 이해 문항과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중복조합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27번)이 출제되었다.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확률 단원에서는 독립인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계산 문항(2번)과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25번)이 출제되어 난도가 다소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통계 단원에서는 이항분포의 분산을 구하는 문항(11번), 모평균의 신뢰구간을 구하는 문항(14번)이 실생활과 연계된 외적 문제 해결 문항으로 출제되었고, 정규분포에서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는 내적 문제 해결 문항(17번)이 출제되었다. 역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확률과 통계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수학Ⅱ

문항 번호	4, 5, 7, 9, 12, 15, 20, 22, 26, 28, 30
출제 의도	• 수학Ⅱ 영역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3문항), 다항함수의 미분법(4문항), 다항함수의 적분법(4문항)에서 총 11문항을 출제하여 수학Ⅱ의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 출제된 문항들을 통해 계산능력(1문항), 개념이해능력(5문항), 문제해결능력(4문항), 추론능력(1문항)을 적절하게 평가
검토 의견	• 수학Ⅱ 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3문항, 다항함수의 미분법 4문항, 다항함수의 적분법 4문항이 출제되었으며 난도가 높은 문항이 미적분 영역에서 주로 출제되었다. •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위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계산 문항(22번)이 출제되었고, 그래프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5번)과 함수의 연속의 뜻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 해결 문항(26번)이 출제되었다. • 미분법 단위에서는 곱의 미분법(4번),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9번)를 묻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고, 그래프의 대칭성과 극대, 극소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 문항(15번)이 출제되었고, 곡선의 그래프를 추측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지수를 미분법을 이용하여 구하는 추론 문항(30번)이 출제되었다. 특히, 30번은 난도가 다소 높은 문항이므로 상위권 학생들을 충분히 변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적분법 단위에서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거리(12번)를 구하는 개념 이해 문항이 출제되었고,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항(20번),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28번)이 내적 문제 해결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 수학Ⅱ 영역의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되고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해당 문항을 해결하는 데 선행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수학 ‘나’형 총평

2021학년도 사관학교 생도선발 1차 시험 수학‘나’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기초한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지만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주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학생이라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음.

6. 2차시험(역사·안보 논술)

가. 일반정보

유형	논술시험	
전형명	응시자 전원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핵심개념 및 용어	역사·안보
시험 시간	30분	

나. 문항 및 자료[문제] (10점)

※ 다음 지문의 주장을 요약하고, 역사적 객관성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확고히 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문헌이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모든 사건이 다 문헌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며, 문헌기록자의 기억력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기억력을 신뢰할 만하다고 해도, 그가 모든 관점을 커버하여 사건의 전부를 목격했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후세 역사가는 실제 발생한 전체 스토리를 얻을 수 없다. 이를테면, 위털루 전투가 있던 날 나폴레옹이 입은 속옷 때문에 몹시 가려움증을 느껴서 이 위대한 인물이 전투에 집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것은 문헌에 남지 않기 때문에 후세의 역사가는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잘 알려진, 그리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재평가가 뒤따를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더불어 현대의 새로운 시각이 역사가의 인식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불쾌한 의복의 옷자락이라도 남아 있다면, 현미경 분석으로 고약한 벼룩의 흔적을 찾아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서 새로운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의 변화된 시각을 바탕으로 과거를 향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가 무척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역사가의 토대가 잠정적이라고 해서 특이한 것은 아니다. ‘순수’과학 중 가장 엄격한 과학 분야조차 그 토대가 잠정적인 경우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존 지만이 쓴 글에 의하면, 현대과학은 진화적이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최선을 다할 뿐이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역사 연구의 결과물도 언제나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출제 의도

- 1)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에 따라 서술되며,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전달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립되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지만, 사료의 합리적 해석과 재구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고의 기본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고자 함.

- 2)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과 역사교과 중 첫 번째 교육단위에서 제시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이해가 갖춰졌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다고 판단됨.

라.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가) 사회과 교육과정 : 과목명 ‘한국사’

나) 성취기준 : 역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과거를 현재의 삶과 관련하여 인식함으로써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다) 자료 출처

- 교과서 : 고등학교 『한국사』

- 교과서 외 : 존 루이스 개디스(강규형 옮김), 『역사의 풍경』, 에코리브르, pp.158-165.

마. 문항 해설

- 1) 이 문항은 중등과정 역사교과와 첫 단위에 제시된 랑케의 실증사학과 카의 주관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반한 역사적 객관성에 대한 지문의 요지를 요약하고, 이러한 서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임.

바. 채점 기준

1) 내용 파악 및 주제의식(5점)

가) 역사 이해의 정확성

나) 출제의도와와의 부합성

- 지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뒤 본인의 의견 전개 평가

- Keyword : 역사서술, 사료(역사 자료, 역사적 근거 등), 역사적 객관성

다) 역사의식의 적절성

- 역사서술은 역사적 자료와 근거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논리를 갖춰 작성되지만, 역사적 사실의 추가 발견이나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쓰여질 수도 있다는 기본 인식 아래 역사적 객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2) 표현의 효과성(2점)

가) 논리구조의 명확성과 타당성

나) 표현의 상황 적절성과 주제 연관성

3) 글의 짜임새(2점)

가) 내용전개의 논리성

나) 문단의 유기적 짜임새

4) 문장형식(1점)

가) 어휘의 적합성

나) 맞춤법 준수 여부

다) 문장의 간결성과 문법적 오류 여부

사. 예시 답안

역사서술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기록은 문헌기록자의 주관에 반영되어 있을뿐더러 온전히 전해지지도 않는다. 또한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과거의 흔적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한다. 역사서술의 토대가 되는 사료의 불완전성에 따라 역사가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서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다.

지문은 역사서술이 불가변적인 과거의 사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역사서술은 역사가가 해석 가능한 일부 자료만을 토대로 나머지를 추론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추론의 방식이나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모든 역사서술은 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가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해석한 뒤, 그것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지문에서도 예로 들었듯이, 과학 역시 여러 실험과 관찰을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지만,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 객관성은 현재까지의 지식을 토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불변의 역사서술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의 역사적 객관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2차시험(면접)

가. 평가요소

인성검사	면 접	
	1분과	2분과
MMPI- II Neo 성격검사 문장완성검사	품성 가치관 책임관 국가/안보관	지원동기 학교생활 자기소개서 용모/태도 가정/성장환경

나. 종합의견

- 1) 면접에 주어지는 주제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라면 수업시간 또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임.
- 2) 제시된 주제들은 지원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주제라 할지라도 지원자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지닌 주체로서 사고의 논리성, 가치관과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과정임.
- 3) 대한민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지원자라면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시험단계이며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고 선행학습을 요구하지 않음.

8. 향후 입학전형 반영 계획

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1차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게 출제하되, 고교 교육과정 범위 준수다. 2차시험 중 실시한 역사·안보 논술평가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향후 교육부 권고(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논술의 단계적 폐지 권고)에 따라 2022학년도 2차시험부터는 역사·안보 논술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라. 면접의 경우에는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은 낮으나 고등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질의

마. 향후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노력